

베트남, 남부 경제중심지역의 개발 추진

국별조사실



□ 남부 신규 3省의 부상

- 지금까지 베트남은 남부개발의 중점을 남부경제 삼각지대라 불리는 호치민시, 동나이(Dong Nai)省, 바리아붕타우(Baria Vung Tau)省, 빈동(Binh Duong)省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시켜 왔음.

- 이중 호치민시는 수송, 국제무역, 서비스, 기술, 인재 등의 점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, 베트남 총 GDP의 18% 공업생산의 30%, 수출입의 40%를 차지하는 경제중심도시임. (남부경제 지역 GDP의 50% 이상을 점유)
- 이러한 호치민시, 3개성과 더불어 호치민시의 서북부 지역을 둘러싼 빈푹(Binh Phuoc)省, 롱안(Long An)省, 타이닌(Tay Ninh)省의 신규 3개성이 “남부 경제중심지역”이라 불리며 개발이 진척중임.
- 이와 같이 호치민시의 각종 인프라 및 노하우의 파급효과를 노린 주변 지역의 경제개발은 베트남 남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.
- 다음은 남부경제 중심지역의 새로운 3개성의 개황 및 투자환경 관련 설명임.

□ 빈푹(Binh Phuoc)省

- 개황 : 인구 70.8만 명, 총면적 6,814km² 으로 남부 내륙의 산악지역에 위치함.
- 경제구조 :
 - 2002년 기준 농업이 63%, 공업이 10%, 서비스가 27%를 차지하고 있음. 2002년 GDP 성장률이 14.6%로 전국평균의 2배에 해당되며, 공업생산성장률은 22.9%, 수출입성장률은 81%를 기록함.
- 투자관련 :
 - 빈푹省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에 소외되어 왔으나 금번 남부경제 중심지역에 포함되어 점진적 개발을 기대하고 있음.
 - 현재 5개의 공업단지가 입주해 있으며, 총 2,120만 달러, 9건의 외국

투자 프로젝트가 시행중임. 기후상 고무, 커피, 캐쉬넛, 후추 등의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암석, 모래, 라임스톤, 클레이 등의 광물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□ 롱안(Long An)省

- 개황 :
 - 호치민시의 남측에 위치하여 메콩델타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임. 캄보디아와 접해있어 남부경제중심지역과 캄보디아를 잇는 무역지대로 간주되고 있음. 인구 134.8만 명에 면적은 4,338km²임.
- 투자관련 :
 - 롱안省은 호치민시에 인접하고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금후 공업단지 개발에 최적의 입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.
 - 현재 호치민시가 자금, 기술,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롱안省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구체적 협력모델 수립에 합의중인데 이미 9개의 공업단지 개발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.
 - 롱안省은 특히 쌀, 설탕 등의 농산가공 투자분야를 장려하고 있으며, 노동집약적인 공업단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가운데, 금년 7월까지 총 5억 달러(67건)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함.

□ 타이닌(Tay Ninh)省

- 개황 :
 - 캄보디아 국경에 접해있으며, 인구는 97만명, 면적은 4,029km²임. 카오다이교 사원, 자우티엥 호수 등의 관광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.
- 투자관련 :
 - 타이닌省 역시 호치민시와 캄보디아 국경 사이에 위치하여 남부경제중심지역인 호치민시와 캄보디아를 잇는 무역지대로의 부상을 계획

중임.

- 또한 국경지대에 국경경제구역을 설립하여,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데 현재 모크바이 국경경제구역과 사마트 국경경제구역이 건설중임.
- 지정학적 조건상 산약작물 재배가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타이어, 고무 부문 등의 외국인투자도 유치하여 현재 2.41억 달러(59건)의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음.

전문연구원 류재욱 (☎3779-6678)
E-mail : jaeukkor@koreaexim.go.kr